

“전라도 천년사 편찬 문제 대응을”

전북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북연 독립성 확보 방안
도정 싱크탱크로서의 역할
균형발전 대책 등 검증



21일 전북도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전북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전북도의회 제공)

전북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는 이날 오후(6시) 전북연구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1일 오전 10시에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권혁남 전북연구원장이 지난 3월 31일자로 의원 면직하여, 2023년 1월 전북도와 도의회 간에 인사청문 실시 협약에 따라 실시되었다.

인사청문위원회(위원장 김이재)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 8명(김이재, 강태창, 송승용, 김정수, 영영선, 박정규, 김성수, 오현숙 의원)과 도의장이 추천한 4명(김민기, 오은미, 윤영숙, 한정수 의원)을 포함해 총 12명으로 구성했다.

이날 청문위원으로 참석한 의원들은 오전 공개검증에서 전북연구원 원장으로서의 역할, 전북연구원 독립성 확보 방안, 도정 전반에 대한 싱크탱크로서의 역할, 전북도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 연구원 운영 전반에 대한 견해 등을 중심으로 질의했으며, 오후에는 비공개로 도덕성 검증에 나섰다.

주요 질의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전북내에서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와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묻고 전북연구원에서는 이에 당사자가 아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책을 발굴하고 전북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제8금융중심지 지정이 거듭 무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전북도의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그 안의 퍼즐들을 하나씩 맞춰 가겠다는 전략으로 목적한 바를 이루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질의했다.

위원들은 현재 전북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연구원들의 낮은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과 지역 내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과 공공의대 유치 등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묻기도 했다.

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라도 천년사 편찬사업에 대해 학자들과 일반 도민들의 인식과 생각이 차이가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전북연구원과 협약을 통해 추진한 사업인 만큼

연구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 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김이재 위원장은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중요한 시기에 도의 미래비전 제시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구원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적합한 후보자 임명을 위해 위원 모두가 철저히 검증했다”고 밝혔다.

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는 이번 청문회 결과를 바탕으로 도덕성, 전문성, 업무능력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2일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남호 원장 후보자는 1997년부터 2023년까지 전북대학교 목재응용학과 교수로 근무했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전북대학교 총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목재문화진흥회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교육감 선거 이재명 명칭 사용 김윤태 우석대학교 교수 ‘무죄’

지난해 진행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교육감 선거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이재명’ 명칭 사용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윤태 우석대학교 교수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21일 지방교유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 6월 1일 실시된 전북도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경력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의 관계 등을 기재, 특정 정당의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전북교육감 후보로 출마했던 김 교수는 (전)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책 싱크탱크, ‘세상을 바꾸는 정책 부단장’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뉴스

“IAEA 모니터링 목적 오염수 해양 방출 지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민주 안호영 의원, 현안질의



은 이에 대해 “우리 정부가 객관적·과학적 검증의 결과물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하는 IAEA 보고서의 답이 이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수동적이고 미온적 대처를 질타했다.

지난 20일 국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현안질의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다. 이날 현장에서 여야 의원 간 야당과 정부 간 공방이 치열하게 오간 가운데 안호영 의원의 판셋 질의가 돋보였다는 평가다.

안호영 의원은 “일본 전문제조차 삼중수소 등 방사성 물질에 대한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데 정부·여당은 국민과 야당을 괴담 유포자라는 낙인을 찍기 바쁘다”며 운을 댄 후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일본 정부 주장을 답습하니 지탄 받는 것”이라며 비판의 강도를 올렸다.

그러면서 “IAEA의 안전성 검토는 오염수 방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계획한 오염수 방출을 지원하는 목적임을 지적했다.

실제 IAEA는 ‘일본이 방출을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방출 계획과 관련 활동의 모니터링 및 검토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해 받아 들였다’고 밝힌 바 있다. 안 의원

정해져 있다는 합리적 의심도 가능하다”고 했다.

“IAEA 판단에 의존하지 않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우리 정부가 독자적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의 답변에도 안 의원은 “독자적인 안전성 검증이 이뤄지면 일본이 제공한 시료가 아닌 독자적인 시료채취와 검증 기준 평가 등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고 공개 발표로까지 이어져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조차 관철시키지 못하고 ‘오염수 결합기’식 시찰단 활동으로 이미 끝판왕을 살기(失期했다)고 비판하며 “정보가 한정돼있으니 IAEA 결론을 그대로 따라갈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안호영 의원은 마지막으로 “오염수가 일단 방류되면 돌이킬 수 없고, 이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큰 문제”라며 “법정부IT에서 방류 저지 시나리오 등 모든 대처방안을 검토 중인 것인지는 의사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하라”

도의회 이차전지 특위
정부·국회에 촉구

전북도의회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군산)과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새만금을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신영대 의원과 전북도의회 이차전지 특별위원회 김동구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소속 도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전북 새만금은 국내 유일 CF100 실현이 가능하고 국가 특화단지개발의 신속성과 부지확장성을 모두 갖춘 최적지”라며 국가 이차전지 특화단지로써 새만금의 지정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신항만과 국제공항 등 인프라는 물론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새만금은 최고의 투자 인센티브를 자랑하고 저렴하고 넓은 부지에 민원까지 없어 우수한 산업 입지적 특성을 고루 갖췄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들은 내년 1월 18일에 본격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통해 각종 특례도 가능하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웠다.

앞선 지난 4월, 전북도의회는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해 정부와 관계기관에 전달한 바 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던 전북도의회 김동구 특위 위원장은 “이번 특화단지 지정은 법조문에도 명시됐듯이 비수



전북도의회 이차전지 특별위원들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열었다.

도권 지역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전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며 균형과 지역발전을 강조했다.

최근 들어 정부의 반도체 규제완화 정책과 기업들의 투자가 수도권과 충청권에만 집중되는 현실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며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한 것이다.

정부는 국가핵심전략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전략기술 유출방지를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제정했고 그 후속 조치로 이차전지를 비롯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의 특화단지를 7월 중에 지정할 계획이다.

기자회견에 나선 전북도의원들은 “대한민국 이차전지의 초격차 기술개발을 확보하고 세계 1위의 위상을 공고히 하려면 그 중심엔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고 이차전지로 특화된 새만금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전북엔 이차전지 투자유치가 눈에 띄게 활발해졌는데, 이차전지 전후방 연관기업만 70여개가 있고 최근 3년간 7조원 규모의 투자를 확정 지을 정도로 새만금을 중심으로 이차전지 핵심소재와 부품기업 집적화가 이뤄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동구 위원장은 “특히 군산은 지난 수년 동안 한국GM과 군산조선소 등 굵직한 기업들이 문을 열어 심각한 경제난 속에 산업 및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고생을 많이 했다”면서 “이차전지 투자가 쇠도하는 지금이야말로 새만금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나후 전북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정부에 간절히 호소했다. /김재훈 기자

“새만금잼버리 안전대책 국비 예산 투입을”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임시회서 촉구 건의안 의결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장을 비롯한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21일 대구에서 제5차 임시회를 열고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재정자립 개선과 농업분야 조세 감면제도 5년 연장 등을 촉구했다.

특히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긴급 안건으로 제출한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해

침수와 폭염 예방 등 안전대책 관련 국비 예산 신속 투입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협의회는 이날 “행안부가 발표한 인구감소 및 관심 지역은 2016~2020년까지의 데이터를 근거로 지정, 현재의 인구 문제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방소멸이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안전한 지역은 한 곳도 없

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침체는 농가에 농자재와 인건비 등 생산비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가 폐지되면 농가는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의회는 이밖에 지역이동센터 통학 차량 통승차 의무사항에 따른 인력충원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 및 수산분야 보호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등의 안건을 의결하고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2023 민간문화시설 기획프로그램 지원사업

문화공간이름
개관 5주년 기념 콘서트

신박듀오

Maurice Ravel
Gabriel Fauré
C. Saint-Saëns
Georges Bizet

2023. 6. 24(토)
5:00pm

문화공간이름
ART SPACE

주최·주관 | 문화공간이름
후원 | 문화재단, 문화재단, 문화재단, 문화재단, 문화재단
전주특별자치도 문화재단
기획 | 이윤영
티켓 | 한이 무료
문의 | 카카오톡 채널 '문화공간이름'
1:1 문의 063)223-5325